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곽장근*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봉화대 분포망 및 봉화로 복원 | 참고문헌 |
| 3. 고고학 자료로 본 반파국 위치 | <Abstract> |
| 4. 철산지 현황 및 반파국 역동성 | |

국문초록

봉화(烽火)는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국력을 대변해 준다. 『일본서기』에 반파국은 봉후(烽)를 이용하여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른 가야 소국으로 등장한다. 전북 동부지역은 고려 말의 봉수선로가 계승하여 조선 초기에 정비된 5봉수로의 직봉과 간봉이 통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110여 개소의 봉화가 역사학계에 보고됐다. 모두 여덟 갈래 봉화로가 복원됐는데, 모든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이다. 임실 봉화산과 장수 봉화봉 학술발굴에서 반파국 분묘유적 출토품과 동일한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가야 토기도 출토됐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 추정 왕궁 터와 장수군 일원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반파국 봉후(烽)제와 관련하여 문헌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을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세력이 대부분 충족시켰다.

주제어 : 백제, 반파국, 봉화, 봉화로, 장수군, 장계분지

* 군산대학교 교수, E-mail: kjk@kunsan.ac.kr

1. 머리말

전북 동부지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모든 가야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합쳐 전북 가야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¹⁾ 전북 가야는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 고총 420여 기와 햇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110여 개소의 봉화(烽火)²⁾로 상징된다. 전북 가야의 용어에는 가야사 국정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전북 가야의 영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제철유적은 230여 개소에 달한다.³⁾ 우리나라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흔히 봉수(烽燧)란 낮에는 연기와 밤에는 햇불로써 변방의 급박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제도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통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고 오직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기능만을 전달했다. 우리 조상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통신유적의 백미로 역사적인 위상과 가치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북지역에서만 가야 봉화와 조선 봉수가 함께 병존한다.⁴⁾

『삼국유사』에 가락국 시조 수로왕이 봉화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삼국사기』에 백제 온조왕 10년 봉현(烽峴)을 비롯하여 봉산(烽山), 봉산성(烽山城) 등이 등장한다. 『일본서기』에는 가야 소국 반과가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동안 백제와 전쟁을 치르면서 봉후제(烽候制)를 운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시대 가야 봉화의 존재와 함께 반과국의 봉후(화)제가 운영됐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고려 의종 3년(1149) 서북면병마사 조진약이 봉수의 거화수를 규정하고 봉수군에게 생활의 대책을 마련하는 상소를 올렸다.⁵⁾ 우리나라에서 봉수제의 시작이 고려시대로 굳어진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그런데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송나라 사신들이 배를 타고 흑산도에 도착하면 항상 야간에는 향로 주변 산봉

1)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2018, 36~75쪽.

2) 삼국시대 가야 봉화대는 길이 8m 내외의 봉화대와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 봉화대를 보호하던 테피식 성벽, 물을 저장하던 집수시설, 봉화군의 주거 공간 등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3)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 현황조사』, 전라북도, 2019, 176~229쪽.

4) 전북 동부지역에 봉화산과 봉화봉, 봉화골, 봉화재, 봉우재, 봉우재봉, 봉화산성 등의 지명들이 있는데, 1990년대부터 봉화산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면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그 수가 110여 개소로 늘었다.

5) 이외에도 봉수의 격식이 규정됐고, 야화(夜火)와 주연(晝烟)으로 구분하여 거화수도 마련했다.

우리에서 봉화 불을 발견할 수 있었고, 봉화는 순차적으로 왕성에까지 이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봉수제는 세종 때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참조하여 거화·거수 등 관계 규식을 새로 정했다. 그리고 변방의 연대를 새로 축조하고 나아가 봉수선로를 일제히 확정했다. 우리나라 봉수제가 거의 체계적으로 잘 정비된 최전성기로 조선 전기의 안정기를 이끌었다. 전북 동부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학계에 보고된 봉수는 대부분 조선시대 만들어진 것⁶⁾들이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봉수⁷⁾는 조선시대 5봉수로 중제(5거⁸⁾)에 해당하는 연변봉수이다.⁹⁾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다가 군산 점방산 봉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충남 서천 운은산 봉수로 이어져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진 간봉이며,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공주의 충청감영을 경유하던 직봉이다. 그리고 바닷길을 따라 배치된 봉수는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등대 역할도 담당했다.¹⁰⁾

전북 동부지역은 고려 말의 봉수선로가 계승하여 조선 초기에 정비된 5봉수로의 직봉과 간봉이 통과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봉화산이 산재해 있다.¹¹⁾ 현재까지 전북 가야의 영역에서 110여 개소의 봉화가 학계에 보고됐다.¹²⁾ 모두 여덟 갈래 봉화로가 복원됐는데,¹³⁾ 모든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이다.¹⁴⁾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 추정 왕궁터와 장수군 일원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층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 6) 『조선왕조실록』에 연산군 10년 일시적으로 봉수제가 폐지됐다가 중종 때 다시 복구됐다. 선조 때 봉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파발제를 도입하여 봉수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고, 숙종 때 봉수 변동론으로 전국 각지의 봉수 재편이 단행됐다. 숙종 이후에는 봉수제와 파발제가 군사적 통신의 기능을 함께 담당했다.
- 7) 고창 구시포, 부안 호고리·점방산, 김제 길곶, 군산 점방산·오성산 봉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8) 순천 들산도에서 출발해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개화산 봉수에 당도한다.
- 9) 조명일, 『서해지역 봉수의 분포 양상과 그 의미』, 『도서문화』 제45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5, 63~100쪽.
- 10) 조명일, 『전북 서해안지역의 봉수와 서해 연안항로』, 『서해안의 전통문화와 교류』, 한국대학박물관협회·군산대학교 박물관, 2010, 73~74쪽.
- 11) 곽장근, 『봉수 왕국 전북 가야』, 전라북도, 2019.
- 12)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2018, 90~107쪽.
- 13) 전북 남원시 운봉읍·무주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순창군, 충남 금산군에서 각각 시작하는 여덟 갈래 봉화로는 복원됐다.
- 14) 조명일,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과 성격』, 『湖南考古學報』 제41號, 湖南考古學會, 2012, 67~90쪽.

『일본서기』 반파국¹⁵⁾ 봉후(화)제와 관련하여 문헌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을 금강 최상류에 기반을 둔 장수 가야¹⁶⁾가 대부분 충족시켰다. 가야사 국정 과제로 장수 영취산 등 6개소 봉화대(烽火臺) 학술발굴에서 6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편만 출토됐다. 무엇보다 임실 봉화산 봉화대에서 반파국 분묘유적 출토품과 동일한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가야토기만 출토되어, 그 운영 주체가 반파국으로 입증됐다.

가야 소국 반파국의 위치 비정¹⁷⁾은 역사고고학의 범주에 속한다. 문헌의 내용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되지 않으면 학계에서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의 봉화로를 복원한 뒤 이를 문헌에 접목시켜 반파국의 위치를 비정하려고 한다. 향후 전북지역 가야 봉화 및 조선 봉수¹⁸⁾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반파국 봉화의 역사성을 조명하기 위한 학제 간 융복합 연구가 시작됐으면 한다.

2. 봉화대 분포망 및 봉화로 복원

1) 전북 동부지역 봉화망과 봉화대 구조

가야 고층 못지않게 가야 소국의 존재 여부를 가장 진솔하게 방증해 주는 고고학 자료가 봉화이다. 중국 『양직공도』 및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가야 소국 반파가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과 대사를 두고 백제와 전쟁을 하면서 봉후(화)를 이용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딘가에 삼국시대 가야 봉화가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삼국시대 가야 봉화대가 전북 동부지역에서만 학계에 보고되어¹⁹⁾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에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영남지방에서는 가야 봉화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5) 李道學,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제90집, 호서사학회, 2019, 47~82쪽.

16) 종래에는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 세력 혹은 진안고원의 장수권 가야 계통 국가 단계의 정치체, 장수지역의 가야, 장수 가야로 불렸는데, 여기서는 여덟 갈래로 복원된 봉화로에 그 근거를 두고 문헌의 반파국으로 비정했다.

17) 종래의 반파국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함양·운봉설, 고령설, 성주설, 장수설 등이 있다.

18) 조선시대 봉수는 남북한 모두 합쳐 700여 개소에 달한다. 전국을 다섯 갈래 길로 나누어 나라를 굳건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 양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2004, 146~1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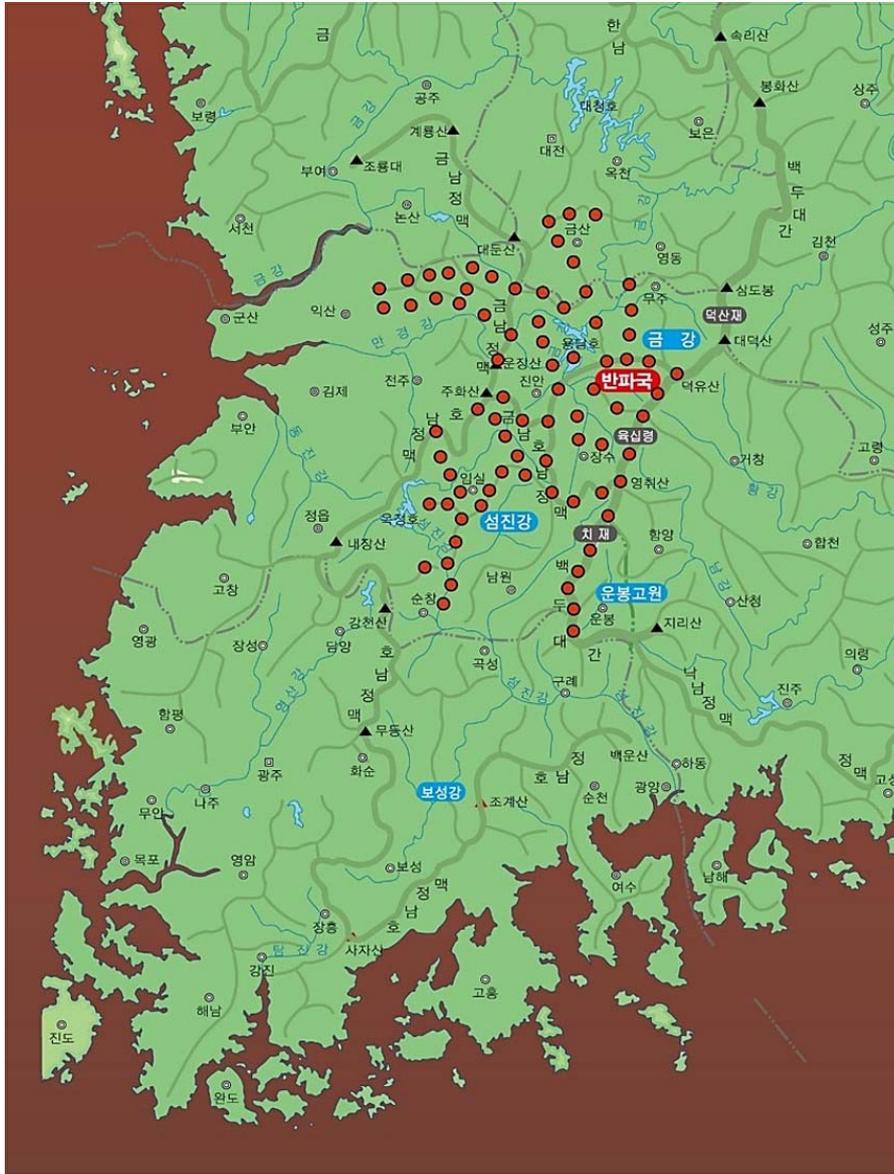


그림 1.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 분포도 및 반파국 위치 비정도

전북 동부지역은 고려·조선시대의 봉수제와 전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 내 봉화산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 110여 개소의 봉화대가 발견됐는데,²⁰⁾ 봉화대는 가야계 문화유적이

20) 조명일, 앞의 논문, 2018, 90~107쪽.

발견된 지역에만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의 분포권과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10여 개소 봉화대의 현황과 그 특성을 수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남강 유역은 운봉고원으로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8개소의 봉화대가 산성과 세트관계를 이루면서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²¹⁾ 남원 봉화산 봉화대는 장방형 봉화대에서 가야토기편이 출토되어, 그 성격이 가야 봉화대로 밝혀졌다.²²⁾ 남원 시루봉 봉화대는 산봉우리 정상부에 성벽을 한 바퀴 둘렀는데, 다른 봉화대는 성벽을 두르지 않았다. 운봉고원에서 전남 곡성과 구례, 경남 하동 등 남해안으로 갈 때 대부분 넘었던 구동치 부근에 위치한 남원 덕치리 봉화대는 운봉봉화호가 시작되는 곳이다.

금강 유역은 신라의 진출이 확인된 구역을 제외하면 70여 개소의 봉화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장수군과 진안군, 무주군, 완주군 운주면, 충남 금산군이 금강 유역을 이룬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 중 다섯 갈래 봉화호가 금강 유역을 통과한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성 내 봉화시설이 여덟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다. 장수 봉화산·영취산·원수봉·침곡리 봉화대를 대상으로 시(밭)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유물은 6세기를 전후한 삼국시대 토기편만 출토됐다. 백제의 국경과 전략상 요충지에 배치된 봉화대는 테피식 성벽을 둘렀다.

섬진강 유역은 상류 지역에서만 20여 개소의 봉화대가 발견됐다. 진안군 남부권과 임실군, 순창군이 섬진강 유역을 이룬다. 모두 세 갈래 봉화호가 섬진강 유역을 가로질러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봉화대는 흙 또는 돌로 쌓은 것과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은 경우로 나뉘는데, 다른 유역과 달리 거칠고 조잡하다. 임실 봉화산은 앞쪽이 둥글고 뒤쪽이 네모난 봉화시설이 발견됐는데, 진안 서비산 봉화대에서도 자연 암반을 똑같은 모양으로 파낸 봉화구가 조사됐다. 임실 봉화산에서 반파국 분묘유적 출토품과 흡사한 가야토기편 출토되어 반파국 봉화대로 명명됐다.

2018년 만경강 유역에서 산성 및 봉화대, 제철유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단일 지역 내 관방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완주군 동북부²³⁾ 일대로 관방유적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은 반파국이 백제와 국경을

21) 강원중, 『남원 운봉지역의 고대 관방체계』, 『호남고고학보』 27, 호남고고학회, 2007, 43~74쪽.

22) 군산대학교 박물관,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문화재청, 2016.

23) 완주군 고산면·경천면·비봉면·화산면·동상면·운주면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주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1500년 전 반파국이 완주군 동북부 일대로 진출하여 금만정맥²⁴⁾을 따라 잠깐 동안 백제와 국경이 형성됐음을 말해준다. 완주 봉수대산 봉화대 등 20여 개소의 봉화에 그 근거를 두고 완주군 동북부 일대를 전북 가야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봉화대는 대부분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장방형으로 쌓고 성벽에 봉화시설²⁵⁾을 배치한 경우²⁶⁾도 있다.

금만정맥은 금남정맥 금만봉에서 시작해 왕사봉을 거쳐 불명산과 천호산, 미륵산, 함라산, 최종 종착지 장계산까지 이어진다. 삼국시대 산성 및 봉화대의 분포망을 근거로 전북과 충남의 경계를 이룬 금만정맥에서 잠깐 동안 반파국과 백제의 국경이 형성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만정맥 산줄기를 따라 서로 4km의 거리를 둔 장재봉·큰남당산·까치봉에 추정 봉화시설이 발견됐다. 한국동란 때 참호를 만들면서 유구가 심하게 훼손되어 그 주조를 살필 수 없지만 완주 성태봉·천호산성 내 봉화시설과 연결된다.

그런데 봉화를 올리던 가야 봉화대는 대부분 장방형으로 그 위치와 축조 재료에 따라 얼마간 차이를 보였다. 본래 반파국 영역이었던 장수군과 무주군 안성면, 진안군 동향면 일대 봉화대는 흑운모 편마암으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만을 가지고 거칠게 쌓았다. 단지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봉화봉의 경우만 화강 편마암으로 벽석이 비교적 두꺼워 얼마간 차이를 보였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한동안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반파국이 전북 진안군과 충남 금산군 일대로 진출하여 봉화망을 구축했다. 봉화대는 대부분 편마암으로 쌓았는데, 장수군 봉화대보다 더 정교하게 벽석을 축조했다. 봉화산과 봉화골, 봉우재, 봉우재봉 등의 지명으로 봉화의 존재를 알렸다. 진안 봉우재봉 등 국경 혹은 전략상 요충지에 배치된 봉화는 테피식 성벽을 둘렀다.

반파국 최전성기에는 금남정맥 산줄기를 넘어 만경강 유역으로 진출했던 것 같다. 완주군 동북부에 집중 배치된 봉화대는 완주 운암산 봉화대를 제외하면 모두 흑운모 편마암으로 쌓았다. 장방형 봉화대의 벽석은 두께가 얇은 할석을 가지고 쌓고 벽석과 벽석 사이에는 소형 할석으로 메꾸었다. 완주 용복리·운

24) 금강과 만경강 분수령이자 전북과 충남 경계를 이룬다. 금남정맥 금만봉에서 시작해 왕사봉을 거쳐 불명산과 천호산, 미륵산, 함라산, 최종 종착지 장계산까지 이어진다. 『산경표』에 실린 15개의 산줄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진정한 금남정맥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전북과 충남 도계를 이룬 금만정맥 산줄기를 따라 산성 및 봉화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5) 완주 종리산성 북쪽 성벽 위에서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이 발견됐는데, 봉화시설은 두 개의 장대형 석재를 10cm 간격으로 나란히 놓았다. 장방형 석재와 그 주변이 붉게 산화되어 봉화대가 얼마간 이용됐음을 알 수 있다.

26) 완주 종리·용복리·천호산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리·종리·천호산성 등 성벽에 봉화시설을 배치하여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섬진강 유역 봉화대는 대부분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은 진안 서비산과 순창 채개산 봉화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흙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임실 봉화산 학술발굴에서 영정주와 함께 남쪽 기슭에서 봉화군이 생활하던 주거공간도 확인됐다. 임실 치마산과 순창 생이봉에서 석축 봉화대도 일부 확인됐지만 그 축조기법은 대단히 엉성하다.

끝으로 봉화를 올리던 봉화시설과 봉화구는 모두 한 개소이다. 봉화대 중앙부에 배치된 봉화시설과 봉화구는 그 평면형태가 원형에서 전방후원형으로 변화한다. 아직까지 만경강 유역에서는 봉화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봉화시설은 2매의 장대형 석재를 10cm 내외의 간격으로 나란히 놓고 그 주변을 원형으로 둘러쌌다. 섬진강 유역에서만 전방후원형의 봉화시설과 봉화구가 모두 공존한다.

2) 여덟 갈래 봉화로 복원과 최종 종착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발견된 110여 개소 가야 봉화는 두 가지 속성에서 공통성을 보였다. 하나는 장수군 장계분지로 향하는 여러 갈래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장방형 봉화대를 만들고 석성을 한 바퀴 둘러쌌는데,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는 주거공간이 자리한다. 조선시대 돌로 연대를 쌓고 그 위에 연조를 설치했던 봉수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북 동부지역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는데,²⁷⁾ 지금까지 복원된 여러 갈래 봉화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진 운봉봉화로이다. 운봉고원은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된 대규모 철산지이다.²⁸⁾ 백두대간 산줄기가 운봉고원 서쪽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구동치·입망치·여원치·사치·치재 등 백두대간 고갯길이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산성 및 봉화가 세트관계²⁹⁾를 보이면서 배치됐다. 백두대간을 따라 선상으로 어이진 운봉봉화로는 봉화산에서 그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운봉고원과 진안고원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기문국과 반파국

27) 조명일, 앞의 논문, 2018, 90~107쪽.

28) 유영춘,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호남고고학보』 제51집, 호남고고학회, 2015, 86~121쪽.

29) 전북 동부지역에서 산성 및 봉화대는 그 분포 양상에서 대체로 한 별을 이룬다.



그림 2. 완주 불명산 봉화대 전경(상), 완주 종리산성 내 봉화시설 모습(하)

의 유대관계가 봉화로 입증됐다. 운봉고원 철산지와 양쪽 지역을 이어주던 옛길을 조망하기 위해 운봉봉화로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나제통문 서쪽 무주봉화로이다. 충남 금산군 부리면과 전북 무주군 부남면 경계에 위치한 수로봉 봉화대에서 시작한다. 이 봉화로는 노고산³⁰⁾·봉화산 봉화대를 거쳐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렇지만 신라 무산현³¹⁾의 행정 치소이자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으로 상징되는 무주군 무풍면 일대에서는 한 개소의 봉화대도 발견되지 않았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신라는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대규모 철산지 무주군 일대로 진출했다. 신라와 국경을 맞댄 반파국은 나제통문 동쪽 신라의 동향을 살피고 무주군 제철유적을 방비하기 위해 무주봉화로를 운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충남 금산분지를 종단하는 금산봉화로이다. 대전시 중구와 충남 금산군 경계에 위치한 금산 만인산 봉화대에서 시작한다. 삼국시대 관방유적과 통신유적, 생산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곳이 금산분지로 1963년 전북에서 충남으로 편입됐다. 만인산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향하다가 금산 봉수치 봉화대에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 금산분지 중앙을 남북으로 종단한다. 진안군과 금산군 경계를 이룬 진안 성치산 봉화대에서 방향을 동남쪽으로 바꾼 뒤 봉화산을 지나 용담댐 본댐 동쪽 진안 지장산 봉화대에 도달한다. 진안 와정토성과 황산리 고분군이 한눈에 잘 조망되는 진안 망바위 봉화대를 거쳐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넷째, 만경강 유역에서 시작하는 완주봉화로이다. 금강과 만경강 유역에서 진안고원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 옛길이 하나로 합쳐져 금남정맥 작은 싸리재를 넘는다. 전북 완주군 비봉면과 익산시 여산면 경계에 위치한 천호산성³²⁾에서 각시봉·불명산 봉화를 거쳐 탄현³³⁾ 봉화대까지 완주군 동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른다. 완주 탄현 봉수대에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금산분지 서남부를 경유하여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멈춘다. 모두 2개소의 봉우재 봉화

30) 금강 남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로 웅진기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사행로가 강을 건넌던 나루터가 있었던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가 한눈에 잘 조망된다.

31)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지명 및 행정구역 개편 때 무풍이라 고쳐 開寧郡 영현이 됐다. 조선시대 『정감록』에 삼재를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 가운데 하나이다.

32) 현지조사 때 밀집과상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삼족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북쪽 산봉우리에서 방형의 봉화시설도 확인되었다. 반파에 의해 초축된 뒤 백제 혹은 후백제 때 다시 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삼거리마을 북쪽에 위치한 고개로 달리 炭峴으로도 불린다. 충남 부여, 논산 일대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진안고원과 금산분지 방면으로 향하는 세 갈래 옛길이 교차하는 전략상 요충지에 위치한다.

대를 경유하여 지명으로도 봉화의 존재를 알렸다. 장수군과 진안군 경계를 이룬 방곡재³⁴⁾ 봉화대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장수 칩곡리 봉화대에 도달한다.

다섯째, 완주 봉실산성에서 출발하는 진안봉화로이다. 만경강 유역 교통의 중심지 완주 봉림산 봉화대에서 대아저수지 북쪽 완주 운암산 봉화대를 거쳐 진안 운장산 봉화대에 당도한다. 금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진안 건천리 봉화대에서 그 방향을 동남쪽으로 바꾼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 고갯길에 한눈에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자리하여 만경강 유역을 감시할 목적으로 진안봉화로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 최상류 진안군 마령분지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금남호남정맥 신평치를 통과하는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이어지다가 장수 봉화산 봉화대에서 멈춘다.

여섯째, 임실 성미산성에서 출발하는 관촌봉화로이다. 몇 차례 수축된 임실 성미산성에서 가야토기가 나온 것은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했던 반파국이 처음 산성의 터를 닦았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 산성 내 정상부가 상당히 넓고 평탄하게 다듬어져 본래 봉화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짐쳐진다. 임실 성미산성에서 서남쪽으로 4km 거리를 두고 임실 범바우산 봉화대와 다시 동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임실 고덕산·구신재 봉화대가 배치되어 있다. 임실 봉화산 봉화대에서 가야토기가 출토되어 잠깐 동안 섬진강을 경계로 백제와 반파국의 국경선이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섬진강 상류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임실봉화로이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10여 개소의 봉화대 중 가장 서북쪽에 임실 경각산³⁵⁾ 봉화대가 자리한다. 호남정맥 경각산에서 임실봉화로가 출발하는데, 경각산은 만경강 유역 전주 일대가 한눈에 잘 조망된다. 임실 치마산 봉화대에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임실군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임실 봉화산을 거쳐 장수 원수봉 봉화대까지 이어진다. 임실 봉화산에서 흙으로 쌓은 장방형 봉화대와 봉화시설, 그리고 조잡하게 만든 가야토기편이 출토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동진강 하구 가야포에서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오수천을 따라 동서로 이어진 순창봉화로이다.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말무재 봉화대를 중심으로 서북쪽에 생이봉 봉화대, 서남쪽에 채계산

34)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와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경계로 서쪽 산봉우리에 봉화대가 자리하고 있다. 본래 반파국 북쪽 경계로 방곡재 양쪽 산줄기를 따라 인위적인 방어시설이 잘 남아있다.

35) 전북 임실군 신덕면과 완주군 구이면 경계에 위치하고 전주 일대가 한눈에 잘 조망된다. 이 산 아래의 광곡마을에서 바라보면 母岳山 방향으로 머리를 향한 고래의 모습이며, 산정상부에 있는 두 개의 바위가 마치 고래의 등에 솟아난 뿔의 형상이다.

봉화대와 오교리 산성 내 봉화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순창봉화로는 오교리 산성에서 출발해 오수천과 평행되게 선상으로 이어지다가 임실 노산 봉화대에서 그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 장수 봉화봉 봉화대까지 계속된다. 영산강 유역에서 출발해 오수천을 따라 섬진강 유역을 가로질러 장수군까지 이어진 옛길을 감시할 목적으로 순창봉화로가 배치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다른 지역의 봉화대들과 달리 봉화대를 대부분 흙으로 축조됐고, 혹시 돌로 쌓은 봉화대도 매우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³⁶⁾

위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는 서로 운영 시기가 달랐을 것으로 짐쳐진다. 본래 장수군을 중심으로 진안군 동향분지와 무주군 안성분지까지 봉화망이 구축된 것 같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일시에 정치적 불안에 빠지자 이를 틈타 반파국이 백제 영역으로 진출을 감행했고, 반파국 최전성기에는 금남정맥을 넘어 완주군 동북부 일대로 진출하여 금남정맥에서 백제와 반파국의 국경이 잠깐 동안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6세기 초 이른 시기 백제가 만경강 유역을 탈환³⁷⁾함에 따라 국경선이 금남정맥으로 이동됐고, 섬진강 유역 임실·순창봉화로는 3년 전쟁 중에 봉화로가 구축됐을 것³⁸⁾으로 추측된다.

한편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는 장수군 장계분지이다. 금강 최상류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발달한 곳으로 운봉고원과 함께 전북 가야의 정치 중심지이다. 백화산에서 뺀 산자락 정상부에 12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과 함께 추정 왕궁 터도 학계에 보고됐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함께 가야 정치체의 존재가 유적과 유물로 입증된 곳이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산줄기에서 갈라진 산자락이 사방에서 장계분지를 병풍처럼 감싼다. 장수 봉화산·침곡리 등 7개소의 봉화대가 장계분지를 빈틈없이 조망하고 있는데,³⁹⁾ 그 중앙에 장수 삼봉리 산성이 위치한다. 여덟 갈래 봉화로에서 실어온 변방의 정보를 하나로 취합했던 곳⁴⁰⁾이다. 조선시대

36) 『일본서기』에 반파국이 백제와 3년 전쟁을 수행하던 중 자탄과 대사에 산성 및 봉화대를 쌓은 것으로 전한다.

37)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23년(501)에 “設柵於炭峴以備新羅”라는 기사가 그 가능성을 방증한다. 진안고원 무주군 일대로 이미 진출한 신라를 대비하기 위해 백제가 백두대간 덕산재로와 육십령로 분기점이자 진안고원으로 통하는 옛길의 길목인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탄현 일대에 목책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싶다.

38) 삼국시대 산성 및 봉화대가 오수천을 따라 집중 배치되어 있는데, 봉화대는 대부분 흙으로 조잡하게 쌓았다.

39) 群山大學校 博物館, 『長水郡의 山城과 烽燧』, 長水文化院, 2002.

40)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회』 제59집, 호남고고학회, 2018, 90~107쪽.



그림 3. 장수 봉화산성 내 봉화시설 봉화구(상), 진안 서비산 봉화대 봉화구(하)

다섯 봉수로의 700여 개소 봉수의 정보를 마지막으로 합치는 서울 목멱산과 그 임무가 똑같다.

금남호남정맥 산줄기가 장수군을 금강과 섬진강 유역으로 갈라놓는다. 백두대간 영취산 서쪽 산봉우리에서 갈라진 한 갈래 산줄기가 북쪽으로 계속되다가 백화산에서 잠시 머문 뒤 그 방향을 동북쪽으로 틀어 장수 삼봉리 산성까지 이어진다. 이 산성을 중심으로 서쪽에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고분군이 북쪽에 반파국 추정 왕궁 터로 알려진 장계면 삼봉리 탐동마을이 있다.

장계면 삼봉리 남산마을 주민들이 삼봉리 산성을 달리 봉화 터로 부른다고 설명해 주었다. 문헌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산성의 의미와 그 역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명이다. 무엇보다 큰 관심을 끈 것은 봉화 터로 불리는 산성 북쪽에 반파국 추정 왕궁 터가 자리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더욱 높였다. 어떻게 보면 서울 목멱산 북쪽에 경복궁이 자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2019년 장수 삼봉리 산성의 초축과 그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이 시작됐다. 가야사 국정과제 일환으로 전라북도와 장수군에서 발굴비를 지원해 주어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시굴조사가 이뤄졌다. 삼국시대 가야 봉화대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 내 가장 높은 산봉우리 정상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차례의 학술발굴에서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장계분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장계천 남쪽에 장수 삼봉리 산성이 위치한다. 장계천과 평행되게 동서로 뻗은 산자락이 있는데, 이 산자락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봉화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봉화시설은 산봉우리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어 마련했는데, 당시 불을 피우던 봉화대는 그 평면형태가 동서로 긴 장방형이다. 전북 동부지역 봉화에서 밝혀진 봉화대의 구조 및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장수 삼봉리 산성은 테피식으로 둘레 250m 내외의 성벽을 들렀다.⁴¹⁾ 성벽은 흑운모 편마암으로 쌓고 성돌 사이에는 작은 돌을 끼웠는데, 성돌은 그 두께가 얇고 일정하지 않다. 전북 동부지역 봉화대와 산성의 축조기법이 거의 흡사한 공통성을 보여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⁴²⁾ 봉화시설 북쪽 기슭에서 목부분에 밀집과상문이 희미하게 시문되고 조잡하게 만든 대부광구호가 출토됐는데,⁴³⁾ 유물의 속성은 반파국 재지계와 일맥상통한다.

41) 全榮來, 『全北古代山城調査報告書』, 全羅北道·韓西古代學研究所, 2003.

42) 완주군 동북부 만경강 유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20여 개소의 봉화대는 판석형 활석을 가지고 벽석을 쌓아 장수 삼봉리 산성 성벽 축조기법과 동일하다.

장수 삼봉리 산성·봉화대는 당시의 시대상이 잘 녹아있다. 반파국이 산봉우리 정상부에 봉화시설을 배치하고 성벽을 한 바퀴 돌렸다. 모든 봉화로에서 실어온 변방의 정보를 하나로 취합해 반파국 왕궁에 보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파국이 국력을 담아 봉후(화)제를 운영했다는 명약관화한 독보적 증거이다. 중국 및 일본 문헌에 등장하는 반파국이 봉화 왕국이라는 사실을 유적으로 증명했다.

반파국 멸망 이후 산성이 문을 닫고 통일신라 무덤이 들어섰다. 본래 봉화시설이 있었던 산봉우리 정상부에서 3기의 뼈단지가 조사됐는데, 이곳은 풍수지리에서 최고의 명당이다. 뼈단지는 땅을 파거나 네 매의 판자모양 돌로 방을 만든 뒤 뼈단지를 두었는데, 당시에 봉화시설이 대부분 유실 내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8세기 전후한 시기 불교의 발전에 따른 화장문화의 유행으로 봉화시설이 무덤 구역으로 그 임무가 바뀌었다.

그러다가 후백제 때 산봉우리 정상부에 누정을 지었다. 산성 내 산봉우리 정상부에서 건물지의 기둥 구멍이 확인됐고, 장수 함미산성·침령산성 출토품과 흡사한 선문이 시문된 후백제 기와편이 나왔다. 그리고 동쪽 기슭 평탄면에서 차 있을 갈 때 쓰던 다연과 쇠스랑, 문고리, 장식 등 많은 철기유물이 출토됐다. 후백제 이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쪽을 제외한 지형이 완만한 기슭에는 민묘가 대규모로 들어섰다.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 입구에 석탑과 석등 부재가 탐처럼 쌓여있다. 옛날 탑동마을에 개안사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곳은 풍수지리에서 최고의 명당에 해당된다. 2020년 시(발)굴조사에서 후백제 때 창건된 절이 후백제 멸망과 함께 문을 닫았다가 조선시대 재건된 것으로 밝혀졌다.⁴⁴⁾ 반파국 추정 왕궁 터 부근에 후백제 절이 들어선 것으로 여겨진다. 어떻게 보면 왕궁과 절터가 한 몸을 이룬 익산 왕궁리 유적과 역사적인 의미가 같다.

3. 고고학 자료로 본 반파국 위치

가야 소국 반파국(伴跋[叛波]國)이 문헌에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己汶),

43)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장수 삼봉리 산성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장수군, 2019.

44) 조선문화유산연구원, 『장수 개안[암]사지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장수군, 2020.

대사(帶沙)를 두고 백제와 전쟁을 할 때 봉후(화)제를 운영한 것⁴⁵⁾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야 봉화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삼국시대 가야 봉화가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냈으며, 임실 봉화산 등 6개소 봉화대의 학술발굴로 그 운영 시기가 삼국시대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야 봉화는 고층 못지않게 가야 소국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 주는 고고학 자료이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실체를 드러낸 110여 개소의 봉화는 두 가지의 공통성을 보였다. 하나는 장수군 장계분지 방면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장방형의 봉화대를 만들고 석성을 한 바퀴 둘렀는데, 산봉우리의 남쪽 기슭에는 평탄 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돌로 연대를 쌓고 그 위에 연조를 설치했던 봉수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불을 피우던 5개의 연조와 불을 피우기 위한 재료를 보관 하던 고사, 그리고 연대와 연조 주위를 두른 방호벽으로 구성된 조선시대 봉수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는데, 현재 여덟 갈래로 복원된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다.

그런데 『일본서기』 계체기 8년 3월조에

반파(伴跛)는 자탄(子呑)과 대사(帶沙)에 성을 쌓아 만해(滿奚)에 이어지게 하고, 봉후(烽候)⁴⁶⁾와 저각(邸閣)을 설치하여 일본(日本)에 대비했다. 또한 이열비(爾列比)와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아 마차해(麻且奚)·추봉(推封)에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서 신라(新羅)를 꺾박했다. 자녀를 몰아 잡아가고 촌읍을 벗겨 빼앗아가니 적의 힘이 가해진 곳에는 남는 것이 드물었다. 무릇 포악하고 사치스럽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베어 죽임이 너무 많아서 상세히 적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일본서기』 계체기 8년 3월조).

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야 소국 반파국이 대규모 축성과 봉후제(烽候制)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아직은 문헌의 공간적인 범위를 단정할 수 없지만 전북

45) 이도하,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장수군』,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2020, 7~32쪽.

46) 봉화를 올릴 수 있도록 쌓은 봉화대(烽火臺)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 조선시대 봉수의 시원형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봉화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동부지역에서 봉화가 배치된 지역⁴⁷⁾과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성군 동북부 등 섬진강 중류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섬진강 중류 지역은 한 개소의 봉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북 동부지역에서 산성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고 산성의 축성 기법도 긴밀한 공통성을 보였다.⁴⁸⁾

문헌에 일본을 대비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 산성 및 봉화의 분포망⁴⁹⁾을 근거로 영산강 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마한도 여기에 포함될 것⁵⁰⁾으로 추측된다. 2019년 복원된 임실봉화로와 순창봉화로⁵¹⁾는 다른 봉화들과 달리 봉화대를 거칠고 조잡하게 쌓았다. 섬진강 유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봉화대들은 514년 반파국이 백제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쌓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헌의 내용을 근거로 반파국이 신라와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웅진 천도 이후 갑자기 백제가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신라는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요사이 대규모 철산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전북 무주군 일대를 편입시켰다. 무주 나제통문을 경계로 그 동쪽에 신라 무산현이 설치된 전북 무주군 무풍면이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개소의 봉화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나제통문 서쪽 무주군 무주읍은 백제의 적천현으로 덕유산 일대에 대규모 체철유적과 가야 봉화가 공존한다. 당시 반파국이 무주군 일대 철산지의 관할권을 두고 신라와 치열하게 전개된 급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문헌의 내용을 유적과 유물로 거의 충족시켜 주는 곳이 무주 대차리 고분군이다.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웅진기 사행로가 금강을 건너던 나루터가 있었던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부근에 무주 대차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모두 11기의 수혈식 석곽묘는 바다에 시상석이 마련된 9기와 시상석이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⁵²⁾ 전자는 유구의 속성이 옥천 금구리, 상주 헌신동·병성동에서 조사된 신라 고분과 일맥상통한다. 일부 가야 고분이 포함되어 신라보다 먼저 반파국이 무주군 일대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투창이 지그재

47) 고고학에서 국가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봉화는 그 분포 범위가 전북 동부지역 가야 세력의 영역과 일치한다.

48) 최인선, 『섬진강 유역의 백제산성』,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49) 조명일, 앞의 논문, 2012, 67~90쪽.

50) 일본의 파병 및 마한의 이탈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자 한다.

51) 영산강 유역에서 섬진강 유역을 동서로 가로질러 반파국의 정치 중심지 장수군 장계분지로 향하는 여러 갈래 옛길을 방어하기 위해 반파국에 의해 대규모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52)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무주 대차리 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무주군, 2019.

그로 뚫린 고배와 대부 장경호 등 40여 점의 신라토기가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상한은 5세기 4/4분기로 편년됐다.

금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위치한 전북 무주군으로 신라의 서쪽 진출을 유구와 유물로 방증해 주었다. 신라 무산현 행정 치소 무주군 무풍면에서도 신라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어⁵³⁾ 다시 또 신라의 서진을 뒷받침해 주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엄연히 나제동맹을 맺은 상태였지만 5세기 4/4분기부터 백두대간을 넘어 진안고원 내 전북 무주군으로 진출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 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가이다. 충남 금산군과 전북 완주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전북 남원시 운봉읍에서 시작된 여러 갈래 봉화호가 모두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만난다. 조선시대 때 전국의 5대 봉수호가 서울 남산에서 합쳐지는 것과 똑같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는 봉후(화)제를 운영한 가야 소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암시해 주었다.

현지조사 때 봉화에서 수습된 유물의 조합상은 봉화의 설치 시기와 설치 주체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보다 시기가 늦은 유물이 봉화에서 수습되지 않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옹기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장수 영취산·봉화산·원수봉 봉화 발굴조사에서 그 운영 시기가 6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속속들이 밝혀졌다.⁵⁴⁾ 모두 3개소의 봉화대는 장방형으로 쌓은 봉화대의 축조 기법에서도 긴밀한 연관성을 보였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정치적인 불안에 빠졌을 때 백제 영역으로 진출한 반파국이 백제의 동향을 살피고 당시 제철유적의 방비⁵⁵⁾를 위해 봉화를 운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덟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성 내 봉화시설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취합했던 것 같다. 진안고원 내 장수군 장계분지는 전북 가야 최대의 정치 중심지였다. 더욱이 봉화대에서 수습된 유물의 속성이 장수 삼봉리·삼고리 등 분묘유적 출토품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장수 가야

53) 全州大學校 博物館, 『茂朱地方文化遺蹟地表面調査報告書』, 全羅北道·茂朱郡, 1988.
 54) 군산대학교 박물관,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장수군, 2016.
 55) 곽장근,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 湖南考古學會, 2017, 4-25쪽.

를 문헌의 반파국으로 비정했다.

가야의 소국 반파국을 비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절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삼국시대 가야 봉화가 발견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복원된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에 가야 고층이 밀집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는 문헌의 내용도 중요하다.

문헌의 절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주는 곳이 장수군 장계분지에 지역적인 기반은 둔 가야 계통의 정치체이다. 다시 말해 반파국의 위치 비정과 관련된 문헌의 내용을 고고학 자료로 모두 충족시켜 주고 있는 유일한 가야의 정치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가야사 연구에서 장수 가야, 즉 반파국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가야 정치체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야사 복원이 완료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안고원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반파국은 4세기 말엽 늦은 시기에 등장⁵⁶⁾해 가야의 소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의해 멸망됐다.⁵⁷⁾ 금남호남정맥이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장악과 관할, 대규모 구리와 철산 개발이 크게 작용했다. 이를 배경으로 장수 노곡리 마한의 지배자 분구묘가 계기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층이 진안고원 장수군에만 조영됐다.

동시에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러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로 밝혀졌기 때문에 가야 정치체의 존재도 입증됐다. 백두대간 서쪽에서 유일하게 가야의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반파국은 110여 개소의 봉화와 16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가야의 봉화 왕국이자 철의 왕국이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가야 고층과 봉화, 제철유적이 함께 공존하는 곳⁵⁸⁾은 백두대간 서쪽 금강 최상류 장수군이 유일하다.

그런데 『양직공도』에 첫 번째⁵⁹⁾로 이름을 올린 반파국이 두 차례의 사비회의에 등장하지 않는다. 『일본서기』 흠명기 2년(541) 4월조, 5년(544) 11월조에 사비회의에 참석한 가야의 소국들이 열거되어 있는데,⁶⁰⁾ 반파국은 두 차례 모

56) 장수 노하리 수혈식 석곽묘에서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대가야, 마한계 토기가 함께 나왔는데, 그 시기가 대체로 4세기 후반기 늦은 단계로 편년됐다.

57) 전상학,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 43, 湖南考古學會, 2013, 35~66쪽.

58) 유영춘, 「장수가야 철기유물의 종류와 특징」,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81~108쪽.

59) 반파국은 웅진기 동안 백제의 도읍 웅진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했던 가야 소국이다.

60) 1차 사비회의에는 安羅·加羅·卒麻·散半奚·多羅·斯二岐·子他, 2차 회의 때는

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기문과 대사를 두고 3년 전쟁에서 백제에 패한 반과국은 사비회의 이전 백제에 의해 멸망(61)됐음을 말해준다. 그럴 가능성은 유적과 유물의 특징으로도 명확하게 입증된다.

아직까지 반과국의 가야 중대형 고총의 매장 시설에서 횡구식, 횡혈식 등 백제 묘제가 확인되지 않았고,⁶²⁾ 장수 삼고리 등 하위계층의 분묘유적에서 삼족토기·횡병(橫瓶)·배부병(杯附瓶) 등 백제토기가 갑자기 부장되기 시작한다. 반과국 분묘유적에서 백제 묘제가 일체 확인되지 않고 갑자기 백제토기가 등장한다. 가야 소국 반과국이 백제와 당시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살필 수 있는 대목으로 반과국의 백제 복속 시기를 일단 웅진기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한편 백제는 반과국 멸망 이후 장수군 장계분지에 백해군(伯海郡)을 설치했는데, 통일신라 때 벽계군(壁谿郡)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지명의 음상사를 통해서도 전북 장수군 장계분지가 반과국의 도읍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⁶³⁾ 백(伯)은 백(白)과 같음 말로 도읍의 뜻이 담겨 있으며, 벽(壁)도 같은 음으로 한자 표기만 다르다. 해(海)는 지명접미사로 성(城)을 뜻하는 말로 벽(谿)도 성(城), 즉 도읍을 의미한다.

고려 때 벽계(壁谿)를 장계(長溪)로 고쳤는데, 백(伯)의 훈이 ‘만이’로써 ‘크다’는 뜻으로 보고 장(長)을 취했고, 계(谿)는 음이 같은 계(溪)로 바뀌었다. 장계는 한자 풀이로 ‘큰 내’가 되지만 원래의 뜻은 ‘큰 마을’이라는 의미의 도읍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백해의 음상사에는 큰 도읍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⁶⁴⁾ 지명의 음상사를 통해서도 금강 최상류 진안고원 내 장수군 장계분지가 반과국의 도읍이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과국은 나라의 이름에서 의문점이 적지 않다. 『일본서기』의 반과(伴跛)는 ‘뒤를 따라가는 절뚝발이’라는 뜻과 『양직공도』의 반과(叛波)에는 ‘반란의 물결’이라는 악의적인 의미가 나라의 이름에 담겨있다.⁶⁵⁾ 당

안라·가라·졸마·사이기·산반해·다라·자타·久嗟 등의 가야의 소국들이 참석했다. 『양직공도』의 반과와 상기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미 백제에 멸망했음을 말해준다.

61) 521년부터 538년 사이 반과국이 백제에 의해 멸망됐을 것으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62) 가야의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횡혈식, 횡구식 등 백제 묘제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반과국이 유일하며, 백제 묘제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도 장축을 산줄기 방향과 일치시킨 유구의 속성을 제외하면 수혈식은 그대로 지속된다.

63) 곽장근, 『웅진기 백제 영토 개척과 지방 지배』,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2018.

64) 임공빈, 『내 고향 우리 이름』, 완주문화원, 2010, 319~322쪽.

65) 박중환, 『양직공도 방소국을 통해 본 백제의 대외관』, 『중국 양직공도 마한제국』, 마한연구원, 2018, 65~92쪽.

시 반파국에 대한 백제의 경멸적이고 최고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는데, 당시 고대국가 백제에 대항했던 반파국의 패착은 반파국의 몰락을 자초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다름 아닌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꽤 오랫동안 정치적인 불안에 빠졌을 때 백제의 국난을 함께 나누지 않고 오히려 백제 영역으로 진출하여 백제의 철산지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 동부지역 백제의 철산지가 거의 반파국의 수중으로 들어갔다.⁶⁶⁾ 백제는 자국의 세력권에서 이탈해 간 백해 세력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설정하여 ‘반(叛)’자를 넣고 ‘해(海)’자는 뜻을 취하여 ‘파(波)’로 변개한 것으로 본 견해⁶⁷⁾가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고고학으로도 반파국의 도읍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반파국의 도읍으로 비정된 장수군 장계분지의 주산은 성주산(聖主山)⁶⁸⁾으로 장수군 장계면 소재지 동북쪽 깃대봉을 가리킨다. 이 산 남쪽 기슭 말단부에 관아터가 있는데 반파국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탑동 마을 일대로 자생 풍수에서도 혈처를 이룬다.⁶⁹⁾ 성주산 서남쪽 태봉(胎峰)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이 반달모양을 이룬다.

백두대간 영취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장수군 장계분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장계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반파국의 추정 왕궁터와 남쪽에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고분군⁷⁰⁾이 위치한다. 현실 세계의 왕궁과 사후 세계의 고총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파국의 추정 왕궁터 동남쪽 산봉우리에 장수 삼봉리 산성이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러 갈래 봉화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다.

66) 현재까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230여 개소의 제철유적 중 본래 반파국의 영역에는 70여 개소, 운봉고원의 기문국에는 40여 개소, 신라의 무산현에는 20여 개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120여 개소는 본래 백제의 영역에 위치한다. 반파국은 백제의 정치적인 불안을 틈타 백제의 철산지 120개소를 장악한 뒤 대규모 축성과 봉화대를 배치했던 것 같다.

67) 이도학, 『장수가야를 넘어 도달한 반파국』, 『전북문화살롱』 제22호, 신아출판사 2020, 13쪽.

68) 이 산 남쪽 기슭 중단부에 태봉이 있는데, 이곳에 왕비의 태를 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69) 통일신라 도선의 비보풍수가 시작되기 이전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 풍수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70) 장수 삼봉리는 반파국의 수장층 분묘유적으로 장수군 장계분지에 120여 기의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4. 철산지 현황 및 반과국 역동성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진안고원이 자리한다.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곳으로 전북 장수군·진안군·무주군과 충남 금산군이 여기에 속한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도 지질 구조상으로 진안고원에 속한다는 주장⁷¹⁾도 있다. 선사시대 이래로 죽 잇달아 지정학적인 이점을 잘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가야, 신라가 철산지이자 구리산지 진안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침으로써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함께 공존한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에 봉화 왕국 반과국이 있다.⁷²⁾ 금강 발원지 신무산 뜯봉샘이 자리해 수계상으로는 금강 최상류를 이룬다. 운봉고원의 기문국⁷³⁾과는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들로 가로막혀 별개의 독립된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반과국은 백제와 국경을 맞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야 문화를 기반으로 가야 소국으로까지 성장했다.⁷⁴⁾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서 유일하게 소국으로까지 발전한 가야 정치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⁷⁵⁾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진안고원에서 발견된 가야 문화유산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⁷⁶⁾ 무엇보다 가야의 영역에서 가야 봉화가 그 참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안고원 내 분묘유적과 생산유적의 밀집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는 대체로 천석과 활석을 이용하여 장방형의 석곽을 만들고 시신을 모시고 유물을 부장한 뒤 개석을 덮고 봉토를 씌운 구조이다.⁷⁷⁾ 유구의 장축 방향은 대체로 등고선

71) 장현근, 『장수군 제철유적지의 지지학적 특성』,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 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23~32쪽.

72)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가야문화권 실제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2014, 369~412쪽.

73) 종래에 남강 유역의 가야 세력 혹은 운봉고원 가야의통 국가 단계의 정치체, 운봉지역 가야, 운봉 가야로 소개됐는데, 이 글에서는 문헌에 등장하는 기문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74) 전상학,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111~125쪽.

75) 문헌에 등장하는 20여 개 이상의 가야 소국들이 대다수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봉화 왕국 반과국만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

76) 모든 가야 영역 중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포함된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통신유적과 제철유적, 제동유적이 공존하는 곳은 전북 장수군이 유일하다.

과 평행되게 두었다. 당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가야 사람들의 삶과 장례 문화를 읽을 수 있다.

2016년 장수 노하리에서 4세기 후반 경 철산 개발을 암시해 주는 유물이 나왔다.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에서 유물은 마한계, 백제계, 가야계 토기류가 함께 공존하는데, 토기류의 조합상은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상징된다. 당시 장수군에서 생산된 철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토기를 보낸 물물교환의 증거물이 아닌가 싶다. 만경강 유역에서 마한계 최대 규모의 분묘유적으로 밝혀진 완주 상운리 출토품과 흡사한 토기류도 포함되어 있다.⁷⁸⁾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 기반을 둔 토착 세력 집단은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 이후 가야 문화를 받아들여 가야의 소국으로까지 성장했다.

가야 고총이란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대형 무덤으로 그 주인공이 지배자 혹은 지배층으로 추정된다. 진안고원 내 분묘유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다. 가야 고총은 대체로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두었다. 그리고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훨씬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권위와 위상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있다.⁷⁹⁾ 고구려·백제·신라와 다른 가야만의 장례 문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가야 고총이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것은 영남지방에서 밝혀진 가야 묘제의 특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서만 2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발견됐다.⁸⁰⁾ 한걸음 더 상세하게 소개하면 장계분지에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서 41기·월강리에서 23기·장계리에서 20여 기, 계남면 호덕리에서 40여 기와 화양리에서 1기의 가야 고총이 있다. 그리고 장수분지에는 마봉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90여 기와 장수 삼고리에 10여 기, 그리고 팔공산 서남쪽 대성고원에도 5기 내외의 고총이 있다. 그러나 진안고원 내 금산군과 진안군, 무주군에서는 가야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장수군에서만 장수 월강리·노곡리 말무덤이 계기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비로소 가야의 중대형 고총으로 커졌다.⁸¹⁾

장수 삼봉리에서 40여 기와 장수 동촌리에서 90여 기의 가야 고총이 한곳에

77) 전상학, 『全北 東部地域 竪穴式 石槨墓의 構造 研究』, 『湖南考古學報』 25, 湖南考古學會, 2007, 102~130쪽.

78)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노하리 고분군』, 장수군, 2018.

79) 金世基,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1995, 352~363쪽.

80)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군의 가야고분』, 장수군, 2017.

81) 전상학,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전북 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2017, 26~37쪽.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반파국의 존속 기간을 말해준다. 장수 동촌리에는 90여 기 이상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가야의 영역에서도 이례적이다. 봉토의 직경이 30m 내외 되는 장수 화양리를 비롯하여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반파국의 위상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가야 고총은 그 보존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⁸²⁾과 민묘 구역 조성으로 장수 삼봉리는 40여 기의 고총 중 2기만 봉토가 얼마간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종래에 백제 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된 호남지방에서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무더기로 발견된 곳은 진안고원에서 장수군이 유일하다. 동시에 반파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가야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다는 가장 진솔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영남지방에서도 2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단일 지역 내에 무리지은 곳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 기수가 많다. 일제강점기부터 줄곧 가야 영역의 서쪽 자연경계로 인식됐던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 자리하여 가야의 영역을 백두대간 넘어 금강 유역으로까지 넓혔다.

가야 고총에서 반파국만의 지역성도 입증됐다.⁸³⁾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 고총은 봉토의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으로 서로 인접된 다른 고총과는 연결되어 있거나 얼마간 거리를 두었으며, 봉토의 가장자리에서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성 송학동처럼 봉토의 하단부가 서로 인접된 연결분(連接墳)으로 그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을 이룬다. 동시에 마한의 분구묘처럼 봉토를 만든 다음 다시 파내어 매장 시설을 마련하여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묘제의 연관성도 입증됐다. 그리고 봉토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자리하고 그 주변에 1~3기 내외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⁸⁴⁾

장수 삼봉리 1호분 주석곽에서 위신재(威身財)인 환두대도가 부장된 흔적과 함께 목관에 사용됐던 꺾쇠⁸⁵⁾가 출토되어, 가야 고총의 피장자가 반파국의 수장층으로 밝혀졌다. 2012년 장수 삼봉리 가야 고총에 대한 학술발굴⁸⁶⁾에서도

82)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전기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일본인 도꾸라세이지가 개발을 명문으로 삼봉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현지에 집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가야 고총을 도굴했는데, 장수 삼봉리 2호분은 매장 시설의 장벽을 거의 드러낼 정도로 도굴의 피해가 극심했다.

83) 전상학,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2018, 46~63쪽.

84) 전상학, 앞의 논문, 2013, 35~66쪽.

85)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진안고원 내 장수 삼봉리 가야의 중대형 고총의 주석곽에서만 나왔다. 운봉고원의 가야 고총 출토품보다 그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 또 다른 가야 소국이 있었음을 확증해 주었다.



그림 4. 장수 장계리 8호분 출토 단야구 및 철기유물 모음(전북문화재연구원)

그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으로 다시 입증됨으로써 반파국의 독자성과 지역성이 다시 또 증명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야 고총의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을 띠는 것은 전북 장수군에서만 조사됐다. 무엇보다 금으로 만든 가는 고리를 비롯하여 재갈과 등자, 꺾쇠 등 값진 유물이 나와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5년 장수 동촌리 19호분에서 말발굽과 말뼈, 30호분에서 위신재로 알려진 f자형판비가 나왔다.⁸⁷⁾ 2017년 장수 동촌리 28호분 주석곽에서 금동제 화살통 장식과 내만타원형판비, 부곽에서 은제 귀걸이가 출토됐다. 2020년 장계면 장계리 8호분 주석곽에서 단야구가 나왔는데,⁸⁸⁾ 망치와 모루, 집게로 구성된 단야구는 그 크기가 작아 2차 단야구로 추정된다. 장수군 내 가야 고총에서 처음으로 말발굽과 2차 단야구가 나와 반파국이 철의 생산부터 주조 기술까지 함께 갖춘 가야 소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장수 삼고리 고분군에서 반파국 발전상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됐다. 비록 반파국 하위계층 분묘유적이지만 유물은 금제 귀걸이와 채색옥, 오각형 환두대도, 재갈 등 위신재가 풍부하게 나왔다. 무엇보다 한강 이남의 마한·백

86)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봉리 고분군』, 장수군, 2015.

87)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장수군, 2017.

88) 전북문화재연구원,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장수군, 2020.

제·가야·신라토기가 함께 섞인 상태로 출토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삼국시대 명품 토기 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장수 삼고리 2호분은 20여 기의 토광묘와 석곽묘로 구성된 다곽식으로 6세기 전후의 연접분에서 거칠고 조잡하게 반파국에서 직접 만든 가야토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⁸⁹⁾

전북 동부지역에 대규모 축성과 봉후(화)제를 운영한 반파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백제에 의해 멸망됐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복속됐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장수 삼고리에서 삼족토기·횡병·병, 장수 동촌리에서 직구호·무투창 고배가 나왔는데, 백제토기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됐다.⁹⁰⁾ 백제토기의 등장을 근거로 6세기 초엽 전후한 시기까지도 백제에 의해 멸망되지 않고 가야 소국으로 반파국이 존속했음을 엿볼 수 있다.

전북 동부지역 110여 개소 봉화의 존재와 여덟 갈래 봉화로 의 최종 종착지가 반파국의 도움으로 비정된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고, 진안고원 내 장수군 장계분지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낸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반파국의 존재를 입증했다.⁹¹⁾ 동시에 가야의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장수 남양리에서 처음 시작됐고,⁹²⁾ 현재까지 반파국 영역에서 가장 많은 제철유적이 학계에 보고됐다.⁹³⁾

영호남 가야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백제 묘제가 유일하게 확인되지 않는 곳이 반파국이다. 반파국 수장층 혹은 지배층 분묘유적으로 밝혀진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동촌리 고분군에서 백제 묘제로 알려진 횡구식 및 횡혈식 석실묘가 조사되지 않았다. 장수 동촌리 28호분이 장축방향을 산자락과 평행되게 남북으로 두었을 뿐이다. 앞장에서 반파국이 백제와 적대관계였다는 문헌의 내용을 다시 또 유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삼국시대 때 가야 소국 반파국과 백제, 신라가 진안고원을 두고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대규모 철산지의 장악과 무관하지 않을 것⁹⁴⁾이다. 봉화 왕국 반파국은 제철유적의 방비와 백제 혹은 마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봉후(화)

89) 백제 영역으로 진출 이후 철의 생산과 유통이 중단됨으로써 고립무원에 처한 반파국이 직접 가야토기를 생산해야만 했던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대변해 준다.

90) 群山大學校 博物館, 『長水郡의 古墳文化』, 長水文化院, 2003.

91) 곽장근, 앞의 책, 2019.

92) 한수영,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목관묘 연구』, 『호남고고학보』 39, 호남고고학회, 2011, 5~25쪽.

93)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앞의 책, 2019, 176~229쪽.

94)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철기유물이 나온 곳이 장수 남양리로 가야 소국 반파국도 철산 개발로 국력을 성장시킨 뒤 봉후(화)제를 운영했음을 반증해 준다.

제를 운영했다. 운봉고원 기문국과 대사 소유권을 두고 백제와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전쟁을 벌였지만 패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6세기 전반 늦은 시기 반파국이 백제에 의해 멸망됐고, 백제와 후백제의 멸망 이후⁹⁵⁾에는 장수군 등 진안고원이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진안고원을 경유하여 백제, 후백제 도읍까지 이어진 교역망이 일시에 끊기고 철산 개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야의 소국으로 반파국의 발전상과 삼국의 각축장으로 진안고원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반파국과 백제, 후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1993년 백두대간 서쪽 장수군에서 반파국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이를 계기로 가야문화유산의 분포망과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도 활발하게 추진됐다. 2003년·2012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 발굴비를 지원받아 학술발굴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장수 삼봉리 고분군이 전라북도 기념물 제128호로, 2016년 9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층으로 구성된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전라북도 기념물 제132호로 지정됐다가 2019년 국가 사적 제552호로 승격됐다.

5. 맺음말

봉화는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국력을 대변해 준다. 동시에 국가의 운명을 도맡은 통신유적의 백미이다. 『일본서기』에 반파국은 봉후(화)를 이용하여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른 가야 소국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신라 변방에 커다란 피해를 준 것으로도 묘사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반파국은 고대국가 백제와 3년 전쟁을 신라와 적대관계를 야기했다. 그만큼 가야사에서 반파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특별하다. 전북 동부지역 봉화망을 문헌에 접목시켜 반파국 위치를 비정한 뒤 반파국을 가야의 Big4로 설정했다.⁹⁶⁾

가야가 『삼국사기』에 등장하지 않아 달리 ‘수수께끼 왕국’ 혹은 ‘비운의 왕국’으로 회자된다. 가야 소국 반파국은 중국 및 일본 당대 기록에 모두 다 등장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520년 경 지은 중국 문헌 『양직공도』에 첫 번째 그 이름을 올려 반파국의 위상과 국력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부

95)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자 반파국과 백제, 후백제의 국가 발전을 선도했던 철산 개발이 일시에 중단됐고, 급기야 940년 벽계군이 벽계현으로 강등됐다.

96) 이도학, 앞의 논문, 2020, 8~13쪽.

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반파국이 등장하지 않아 적지 않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렇게 본다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금관가야와 대가야, 소가야 등 여섯 가야 소국의 국명은 당시 중국 및 일본 문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1500년 전 문헌에 반파국은 강력한 가야 소국으로 등장하는데, 문헌에서 요구하는 반파국 정체성(identity)은 봉후(화)이다. 다시 엄밀히 말하면 가야 봉화는 반파국의 아이콘(icon)이다. 1990년대 한 개소의 가야 봉화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도움을 둔 대가야를 반파국으로 비정한 견해⁹⁷⁾가 정설로써 줄곧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영남지방에서는 한 개소의 가야 봉화가 발견되지 않아 학계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 가야의 영역 설정은 가야 봉화망에 그 근거를 두었다. 지금까지 여덟 갈래 봉화로는 복원됐는데, 모든 봉화로의 출발지를 연결하면 반파국의 국경선이 완성된다. 반파국 영역은 백두대간이 동쪽, 섬진강이 서쪽 경계를 형성하고 충남 금산군이 북쪽 국경을 이룬다.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반파국은 백제의 정치적인 불안을 틈타 백제 영역으로 진출을 강행했다. 당시 반파국이 섬진강과 만경강 유역으로 진출했음을 110여 개소의 봉화대로 문헌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었다.

전북 가야의 영역에서만 문헌 속 가야 봉화가 그 존재를 드러냈다. 가야 봉화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다. 반파국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 장수 봉화산 봉화대 등 7개소의 가야 봉화대가 장계분지를 병풍처럼 감싼 산자락 정상부에 위치한다. 장수 삼봉리 산성 내 봉화시설이 모든 봉화로의 정보를 하나로 취합했던 것 같다. 조선시대 다섯 갈래 봉화로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합하는 서울 목멱산과 같은 곳으로 그 북쪽에 반파국 추정 왕궁터가 위치한다.

장수군 장계분지는 반파국 도읍지였다. 장계분지 동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성주산(聖主山)으로 반파국 도읍지 주산으로 추정된다. 성주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자락에 태봉(胎峰)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왕비의 태를 묻었다고 전한다. 태봉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이 반달모양으로 휘감아 최고의 혈처를 이뤘는데, 그곳이 바로 반파국 추정 왕궁 터이다. 후백제 때 사찰

97)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114~136쪽. 박천수, 「대가야권의 성립과정과 형성배경」, 『토기로 보는 대가야』, 대가야박물관, 2006, 337~402쪽. 朱甫暉, 「새로운 大伽耶史의 정립을 위하여」, 『嶺南學』 제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42~45쪽.

을 지어 반파국의 왕궁 터와 후백제 개안사지가 서로 중첩되어, 익산 왕궁리 유적을 연상시킨다.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고분군은 반파국 수장층 혹은 지배층이 잡든 분묘유적이다. 현재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20여 기의 가야 고층이 무리지어 있는데, 본래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일제강점기 도꾸라세 이지가 땅을 매입한 뒤 건물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여 가야 고층을 대부분 도굴했다고 한다. 가야 고층 중 도굴의 피해가 가장 극심한 상황이다. 장수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고분군과 추정 왕궁 터가 장계분지에 공존함으로써 반파국 도읍지였음을 확증해 주었다.

1500년 전 반파국이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국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당시에 국력의 원천은 철이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유적⁹⁸⁾이다. 현재까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이 가장 많이 학계에 보고된 곳도 장수군이다. 반파국 영역에서만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200여 개소에 달한다. 반파국이 철의 생산과 유통으로 국력을 다져 전국에 봉화망을 구축한 것이 아닌가 싶다. 반파국의 가야 봉화와 제철유적은 서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았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은 제련부터 정련, 주조까지 모두 담아낸 종합 제철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 제철유적으로 밝혀져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직은 반파국과 제철유적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⁹⁹⁾ 반파국 가야 고층에서 단야구와 편자를 중심으로 마구류, 무구류 등 지역색이 강한 철기류가 출토되어 그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일단 반파국이 봉화 왕국으로 융성하는데 철의 생산과 유통이 결정적인 공헌을 했을 것으로 유추해 두고자 한다.

가야사 국정과제로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는 110여 개소에 달한다. 지금도 봉화를 찾고 알리는 정밀 지표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부터 1000m 내외의 산봉우리를 오르내리는 가야 봉화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고고학자들의 도전과 독심에 감사를 드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야 봉화에 역사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걸어온 길보다 더 먼 길을 또 가야할 것 같다. 반파

98) 한수영,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 남양리 유적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33~47쪽.

99) 유영춘,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호남고고학보』 제57집, 호남고고학회, 2017, 38~75쪽 ;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2018, 64~88쪽.



그림 5. 진안 태평 봉화대 추정 복원도 및 활용방안 모식도

국 봉화를 레이저 아트로 재현 및 활용방안¹⁰⁰⁾이 마련됐으면 한다.

2017년 11월 25일 가야사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전라북도 주관으로 ‘봉수 왕국 전북 가야’ 기념비를 백두대간 치재 부근에 세웠다. 1500년 전 반파국이 110여 개소의 봉화대를 전북 가야의 영역에만 남겼기 때문이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유일한 가야 소국이자 봉화 왕국이 반파국이다. 2019년 완주 탄현 봉수(화)와 부안 점방산 봉수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그 존재와 역사성을 세상에 알렸다. 삼국시대 가야 봉화와 분묘유적, 제철유적으로 반파국 정체성을 조명하기 위한 학제 간 또는 지역 간 융복합 연구가 시작됐으면 한다.

논문접수일: 2020. 11. 11. / 심사개시일: 2020. 11. 17. / 게재확정일: 2020. 11. 25.

100) 유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장수·장계분지의 고분군·산성·봉수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제42호, 전북사학회, 2011, 5~44쪽 ; 『장수군 제철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 문화유산연구원, 2016, 129~148쪽 ; 『전북 가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가야문화의 寶庫, 전라북도를 조명하다』, 호남사회연구회, 2017, 89~115쪽.

참고문헌

- 『삼국사기』
- 『일본서기』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2014,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 강원중, 2007, 「남원 운봉지역의 고대 관방체계」, 『호남고고학보』 27권.
- 광장근, 2008, 「호남 동부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 『영남학』 13호.
- 광장근, 2017,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권.
- 광장근, 2018, 「웅진기 백제 영토 개척과 지방 지배」,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 통치』, 한성백제박물관.
- 광장근, 2019,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전북』,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8, 『전북 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전북 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 현황조사』, 전라북도.
-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2, 『長水郡의 山城과 烽燧』, 長水文化院.
-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3, 『長水郡의 古墳文化』, 長水文化院.
-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6,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문화재청.
- 金世基, 1995,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김주홍, 2003, 『한국의 봉수』, 눈빛.
- 박중환, 2018, 「양직공도 방소국을 통해 본 백제의 대외관」, 『중국 양직공도 마한제국』, 마한연구원.
- 박천수, 2006, 「대가야권의 성립과정과 형성배경」, 『토기로 보는 대가야』, 대가야박물관.
- 백승욱, 2020, 「반파국 위치 재론」, 『전북사학』 58호.
- 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호남고고학보』 51집.
- 유영춘, 2016, 「장수가야 철기유물의 종류와 특징」,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유영춘, 2017,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호남고고학

보』 57집.

- 유영춘, 2018,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59집.
- 유철, 2011,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장수·장계분지의 고분군·산성·봉수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2호.
- 유철, 2016, 「장수군 제철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유철, 2017, 「전북 가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가야문화의 寶庫, 전라북도를 조명하다』, 호남사회연구회.
- 李道學, 2019,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집.
- 이도학, 2020a,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장수군」,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 이도학, 2020b, 「장수가야를 넘어 도달한 반과국」, 『전북문화살롱』 22호, 신아출판사.
- 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임공빈, 2010, 『내 고향 우리 이름』, 완주문화원.
- 장현근, 2016, 「장수군 제철유적지의 지질학적 특성」,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전상학, 2007, 「全北 東部地域 豎穴式 石槨墓의 構造 研究」, 『湖南考古學報』 25호.
- 전상학, 2013,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 43권.
- 전상학, 2016,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전상학, 2018,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권.
- 全榮來, 2003, 『全北古代山城調査報告書』, 全羅北道·韓西古代學研究所.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장수 삼봉리 고분군』, 장수군.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a,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장수군.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b, 『장수군의 가야고분』, 장수군.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장수 노하리 고분군』, 장수군.
- 全州大學校 博物館, 1988, 『茂朱地方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全羅北道·茂朱郡.
- 조명일, 2004,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 양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 조명일, 2010, 「전북 서해안지역의 봉수와 서해 연안항로」, 『서해안의 전통문화

와 교류』, 한국대학박물관협회·군산대학교 박물관.

- 조명일, 2015, 「서해지역 봉수의 분포 양상과 그 의미」, 『도서문화』 45집.
- 조명일, 2018,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59집.
- 朱甫暉, 2008, 「새로운 大伽耶史의 정립을 위하여」, 『嶺南學』 13호.
- 최인선, 2008, 「섬진강 유역의 백제산성」,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한수영, 2011,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목관묘 연구」, 『호남고고학보』 39권.
- 한수영, 2016,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남양리 유적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Abstract>

Gaya Beacon Network and Banpa Nation Maladministration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Kwak Chang-keun *

Beacons represent the existence, territory, and power of a nation. In Nihon Shokki, Banpa Nation is a minor power in Gaya that waged war against Baekje by using beacons for 3 years. The eastern region of Jeonbuk Province is not included in the network of direct and indirect beacons of the 5 beacon routes that were succeeded at the end of Goryeo and renovated early in the Joseon Dynasty. In circles of historical studies, more than 110 beacons have been reported over the eastern region of Jeonbuk Province. 8 branches of beacon routes in total have been restored, and all of them lead to the final destination, Janggye Basin, Jangsu-gun. In the beacon mountain of Imsil and the beacon summit of Jansu, Gaya vessels made directly by Banpa Nation were excavated. These were same with excavated articles from Banpa Nation tomb remains. Including the site assumed as part of a royal palace site, more than 240 Gaya medium/large size old tombs are concentrated over the area of Sambong-ri, Janggye-myeon, Jangsu-gun. Essential conditions stated in documentary records regarding Banpa Nation beacon fire rituals are mostly met by the Gaya force stationed geographically in Jangsu-gun.

Key Words : Baekje, Banpa Nation, Beacons, Beacon routes, Jangsu-gun, Janggye Basin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History & Philosophy[History Major]